

순천시 모든 산모에 산후조리비용 100만원 지급한다

내년 출산·양육 예산 24% 늘려 난임 시술비 지원도 대폭 확대 돌봄센터 방향 중 급식비 지원

순천시가 저출생 극복을 위해 내년부터 모든 출생아 산모에게 산후조리비용 100만원씩 지급하고, 현재 1인당 25회 지원하고 있는 난임 시술비 지원을 출산당 25회로 확대한다.

순천시에 따르면 내년도 출생·양육·돌봄 지원 예산을 올해보다 24%(37억원) 더 확대해 저출산 문제에 적극 대응키로 했다고 밝혔다.

시의 이 같은 방침은 지난 10월 시행한 인구정책 수립 시뮬레이션에서 53.8%에 달하는 주택 마련 등 경제적 부담이 결혼을 주저하는 가장 큰 요인으로 나타남에 따라 산모들의 부담을 덜어주

고자 결정됐다.

시의 내년 저출생 극복 정책은 ▲산후조리비용 지원 금액 상향 ▲난임 시술비 지원 확대 ▲방학중 급식비 지원 ▲외국인 아동에 대해 연령별 보육료 50% 지원 등이다.

먼저 산후조리비용은 종전 첫째아 80만원, 둘째아 100만원 지원했던 것을, 내년부터는 출생 순위와 상관없이 모든 출생아의 산모에게 100만원씩 지원키로 했다.

또 난임 시술비 지원은 평생 동안 여성 1인당 25회 지원하던 것을 출산당 25회로 확대하고, 연령기준을 폐지해 모든 여성이 동일하게 회당 30만원에서 11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다함께돌봄센터(5개소)와 순천형 초등돌봄기관(3개소)을 이용하는 아동에 대해서는 방학기간 동안 급식비 1식 9000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전남도 내에서는 최초로 순천시에 체류지 등록

을 한 어린이집 재원 중인 외국인 아동에게 연령별 보육료의 50%를 지원하여 외국인 가정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는다.

시는 저출생 극복을 위해 아이와 부모가 안심할 수 있는 순천형 응급의료 체계 확립 사업도 본격 추진중이다. 달빛 어린이 병원을 내년에도 지속 운영하며, 24시간 소아응급실 체계를 확립한다.

또한, 대학병원 설립과 연계해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와 소아재활센터를 설치하고 지역 필수 의료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노관규 순천시장은 "임신부터 출생, 양육, 초등돌봄까지 아이 낳고 양육하기 좋은 도시로 정착할 수 있도록 체계 정책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양육, 돌봄 지원 확대도 가정경제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지역 경제가 촉진되는 불씨가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순천=김은중 기자 ejkim@kwangju.co.kr



철쭉 재배 근절로 흙을 살리자

구례군 농업인 흙 살리기 교육

토양 생태계 회복 다양한 정책도

"철쭉 재배 근절로 흙살리기 앞장서자." 구례군이 철쭉 재배로 인한 환경 문제를 해소하고 지속 가능한 농업을 실현하기 위해 본격적인 행동에 나섰다.

이를 위해 군은 지난 16일 문화예술회관에서 지역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흙을 살리는 첫걸음, 철쭉 재배 근절'을 주제로 특별 교육을 열었다. <사진>

이번 교육에서 구례군은 철쭉 재배로 인한 농약 비산, 양질의 토양 반출, 토양 오염 등 여러 문제점을 강조하며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

했다.

특히, 철쭉 재배로 인한 토양 오염 문제는 심각한 수준에 이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군은 보조 사업 대상에서 철쭉 재배를 제외하고, 철쭉 재배를 위한 농지 불법 임대 행위를 엄격히 단속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철쭉재배 근절 대책 시행 지침'을 수립했다.

이 지침을 통해 군은 철쭉 재배 근절을 적극 추진하며, 이를 토대로 지역 내 토양 환경을 개선하고 건강한 농업 생태계를 조성할 계획이다.

구례군 관계자는 "토양 생태계 회복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고, 지속 가능한 친환경 농업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구례=이진택 기자 lit@kwangju.co.kr

광양시 올해 청년고용률 2% 늘어 45%...취업자 8900명

일자리위원회 열어 성과 공유

청년친화 일자리 1052개 창출

광양시가 지속적인 청년취업 정책에 힘입어 올해 청년고용률이 2% 상승하고, 청년 취업자 수는 200명 늘어났다.

이 같은 결과는 지난 20일 광양시청 상황실에서 열린 김기홍 광양시 부시장 주재의 2024년 광양시 청년일자리위원회에서 밝혀졌다.

청년일자리위원회는 청년일자리 정책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실질적인 일자리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구성·운영하는 위원회로, 이번 회의에서는 2024년 청년일자리 창출 성과와 2025년 청년일자리 사업계획을 공유했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올해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사업, 동행일자리사업 등 교육훈련사업에서 창출한 300여개의 양질의 일자리를 포함해 청년 친화 일자리 총 1052개를 창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023년 42.8%를 기록한 청년고용률(18~29세)이 올해는 2% 올라 44.8%를 기록했으며, 청년 취업자 수도 증가해 2023년 8700명에서 올해 8900명으로 200명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청년고용 촉진을 위한 신규 사업의 성공적 추진이 한몫 한 것으로 풀이된다.

신규 사업의 구체적 사례로 올해 구직 단념 청년



광양시가 지난 20일 시청 상황실에서 2024년 청년일자리위원회를 개최했다. <광양시 제공>

들의 사회활동 진출을 도와주는 '청년도전지원사업', 지역 기업의 현장실습과 대학생에게 현장 실습비를 지원하는 '대학생 현장실습 활성화 지원사업', 구인기업과 구직자에게 양방향 중합 일자리 정보 제공을 위한 '스마트구인구직플랫폼(굿잡망)' 개설 및 활성화' 등을 꼽을 수 있다.

이 같은 여세를 몰아 2025년도에는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 교육훈련 사업과 더불어 신규 사업으로 ▲전남 청년 희망일자리사업(중소기업 청년 인건비 지원) ▲직업계 고등학교 신산업분야 연계

프로그램 운영 ▲청년농 소형농기계 지원사업 등을 추진해 청년들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힘쓸 방침이다.

이날 위원회에 참석한 김기홍 광양시 부시장은 "청년일자리 위원회를 통해 올해 추진한 사업의 성과를 돌아보고 2025년도 사업을 추진하기 전 관련된 모든 사항을 재점검했다"며 "광양시는 우리 사회의 미래의 주역인 청년들의 경제적 자립을 위해 시가 가진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kwangju.co.kr

전문건설협회의·재광항우회 곡성군인재육성 장학금 500만원·200만원 기탁

곡성군전문건설협회의와 재광곡성항우회가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장학금 500만원과 200만원을 각각 곡성군 미래교육재단에 기탁했다.

곡성군전문건설협회의는 지난 16일 열린 인재 양성 장학금 기탁식에서 "미래의 주역인 학생들이 꿈을 키워갈 수 있도록 돕고 싶었으며, 이번 기부가 지역 인재들의 성장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며 재단 이사장인 조상래 곡성군수에게 500만원을 전달했다.

또 지난 13일 열린 재광곡성항우회의 기탁식에서 안재현 항우회 회장은 "이번 기부는 우리가 성장한 고향을 위한 마음으로 이루어졌으며, 앞으로도 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여러 방법을 모색해 나가겠다"며 조상래 군수에게 200만원을 전했다.



곡성군전문건설협회의가 인재양성 장학금 500만원 미래교육재단에 기탁했다. <곡성군 제공>

미래교육재단 이사장 조상래 곡성군수는 "곡성군전문건설협회의와 재광곡성항우회의의 기탁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 기부금은 학생들에게 장학금으로 지원되어 그들이 더 큰 꿈을 실현하는 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기후원·재능기부 등은 곡성군미래교육재단(061-884-8213)을 통해 가능하다.

/곡성=김대성 기자 bigkim2@kwangju.co.kr

여수시 "연말·연초 지역사랑 상품권 127억원 추가 발행"

골목상권 활성화 민생안정대책 축제·행사·연말모임 적극 권장

여수시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연말·연초 지역사랑 상품권 127억원을 추가발행하기로 했다.

여수시는 지난 20일 열린 주간업무계획 보고회를 통해 이 같은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기명 여수시장은 "연말 특수가 사라진 민생경제와 골목상권의 활성화를 위해 연말 모임이 권장되는 경제적 상황이다"며 "지자체

주관 축제·행사 등도 기존 계획대로 진행하고, 우리 직원들도 지역 업소를 이용해 계획된 모임을 가질 것"이라고 당부했다.

또 "시 예비비(4억5000만원)와 내년도 예산을 긴급 투입해 연말·연초 지역사랑 상품권 127억원을 추가 발행해 판매할 계획이다"며 "취약계층이 우선 이용할 수 있도록 공직자들이 이번에는 양보해 달라"고 부탁했다.

이어 정 시장은 "이처럼 출고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 주위에 소외된 이웃들에게 관심과 배려가 더욱 필요한 시기"라며, "복지 담당 부서와 읍면동에서는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 안부 살피기와 지원에 더 신경을 써 달라"고 주문했다.

/여수=김창화 기자·동부취재본부장 chkim@

앞서 정 시장은 지난 16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국회 가결에 따른 긴급 간부회의를 주재하고, 민생안정을 위한 대책을 신속히 추진할 것을 지시했다. 지난 10일부터 부시장을 단장으로 지역경제, 취약계층 지원, 안전관리, 행정지원 등 4개 분야의 민생안정 대책반을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이와 함께 여수 국가산단 석유화학플랜트 매출 감소 기업에 대한 고용안정 지원과 지역 세금 경기 회복 시책, 취약계층을 위한 긴급복지 지원방안, 동절기 안전사고 예방 대책 등을 수립해 시행하고 있다.

보성군 스마트 별통 보급 꿀벌 소실 극복

꿀벌 스마트 사육시설 지원사업 안정적인 꿀벌 공급 체계 구축

보성군은 양봉농가의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추진한 '꿀벌 및 화분 매개 벌 스마트 사육시설 지원사업'을 통해 총 사업비 4억원을 확보하고, 안정적인 꿀벌 공급 체계를 구축했다고 23일 밝혔다.

전국 양봉 산업은 겨울철 이상기온으로 인한 월동기 꿀벌 소실, 벌 구입비 증가, 꿀 생산량 감소 등으로 농가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꿀벌을 화분매개곤충으로 이용하는 보성군 딸기, 토마토, 오이 등 시설원에 농가들은 화분 매개 벌 구입 가격이 높아져 농가 경영비 상승으로 큰 부담을 호소하고 있다.

이에 보성군은 '꿀벌 및 화분 매개 벌 스마트 사육시설 지원사업'에 나섰다. 이 사업은 한파, 폭설 등 이상기상 조기 감지를 통해 월동기 꿀벌을 보호하고 디지털 센서 및 관련 장비를 이용한 스마트 사육환경 관리 기술을 보급해 화분 매개용 꿀벌 전문 생산 농가를 육성하는 사업이다.

군은 양봉 사육 농가 13명을 대상으로 진행했으며, 본 사업을 통해 스마트 별통 65대, 비가림시설 5개소, 기자재 창고 2개소, 저온저장고 5개소를 설치하는 등 양봉 사양 시설 개선 및 스마트 사육 시설 구축을 지원했다.

또한, 채밀대차, 자동 채밀기, 자동 탈봉기 등 노동력 절감 기계 장비 10종 25대와 소조광, 벌통, 자동사양기 등 소모성 기자재를 농가에 지원해 양봉 사육에 대한 노동력 절감 및 생산력 향상을 도왔다.

"스마트 별통"은 봉군 내부 환경(온·습도, 암모니아, 이산화탄소 농도 등)을 애플리케이션(응용 프로그램)을 통해 확인하고, 보온시설 및 환기팬을 통해 별통 각각의 내부 환경을 조절하여 봉군을 관리하는 기기다. 꿀벌 활동을 모니터링하고,



스마트별통 내부 모습.

수분 및 먹이 관리 제어를 통해 월동기뿐만 아니라 일반 사양 시기에도 꿀벌 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

군은 꿀벌 및 화분 매개 벌 스마트 사육시설 지원사업을 통해 벌꿀 및 로얄 젤리, 프로폴리스 등 양봉 산물의 안정적인 생산에 효과를 보았으며, 화분 매개용 꿀벌의 원활한 공급으로 보성군 시설원에 농가의 큰 호응을 얻었다. 보성군은 양봉 농가들의 안정적인 꿀벌 생산을 위해 '꿀벌 및 화분 매개벌 스마트 사육시설 지원사업'을 내년에도 국비를 추가 확보해 지속해서 지원할 예정이다.

한국양봉협회 보성군지부장 김연수 대표는 "이 사업을 통하여 이상기상으로 매년 월동기를 걱정하는 양봉농가에 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며 "화분 매개 벌 공급을 통해 보성군 양봉농가와 시설원에 농가가 서로 윈-윈 하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보성=김승백 기자 kyb@

고흥군 청년 후계농·농업경영인 지원자 모집

내년 2월5일까지...정착금 등 지원

고흥군이 농업 발전을 끌어 나갈 예비 농업인과 농업경영인 육성을 위해 오는 2025년 2월5일까지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청년 후계농)과 후계농업경영인 지원사업(일반 후계농) 대상자를 모집한다.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은 사업연도 기준 만 18세 이상·만 40세 미만으로, 독립경영 3년 이하(독립경영 예정자 포함)의 청년 농업인이 신청할 수 있다. 최종 선정된 청년 농업인은 최대 3년간 매월 90만원에서 110만원의 영농정착지원금을 받게 된다.

후계농업경영인 지원사업은 만 18세 이상·만

50세 미만으로 영농에 종사한 적이 없거나 경력 10년 미만인 농업인이 대상이다. 농지 구입, 가공 시설 설치, 축사 신축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국고 융자금을 5억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융자금은 연 1.5% 금리로 5년 거치 20년 분할 상환 조건이다.

사업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농림사업정보시스템(https://uni.agrix.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직접 신청해야 하며, 중복신청은 불가하다.

고흥군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집체한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예비 농업인과 청년 농업인의 성공적인 영농 정착을 돕겠다"며 "젊고 유능한 농업인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

/고흥=주각중 기자 gjju@